

도그 워커의 사랑

2025.10.29-11.16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강동훈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티스트 Artist (2008-2025)	이경현(극작가) 본주(작·연출가) 강동훈(극작가) 〈도그 워커의 사랑〉 박주영(작·연출가) 〈마른 여자들〉 배해률(극작가) 〈시차〉 신진호(연출가) 〈애도의 방식〉 강현주(작·연출가) 〈잘못된 성장의 사례〉 진해정(작·연출가) 〈러브 앤 인포메이션〉 진주(극작가) 〈클래스〉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죽음과 소녀〉〈오셀로〉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 〈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김은성(극작가) 〈빨〉〈목란언니〉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 〈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폭스파인더〉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븐우리절문날〉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이경현(극작가) Lee, Kyeong Heon Playwright 본주(작·연출가) Bonjoo Plywright · Director 강동훈(극작가) Kang, Dong Hoon Playwright 박주영(작·연출가) Park, Ju Young Playwright · Director 배해률(극작가) Bae, Hae-youl Playwright 신진호(연출가) Shin, Jin Ho Director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a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 (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	--	---	---

진정한 나, 나-되기란 무엇일까?

〈도그 워커의 사랑〉

이경미(연극평론가)

1. 2년 전 그의 질문 : 진정한 관계-맺기와 진정한 공동체에 대해



연극 〈그게 다예요〉(2023)
공연 포스터

23년 신촌문화발전소에서 만났던 강동훈 작가의 〈그게 다예요〉(전인철 연출, 극단 돌파구)는 한국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지나온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전쟁을 피해 남쪽 바다 끝까지 쫓겨 도망쳤다가 남편과 자식을 잃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다로 사라진 어느 여인이 있고, 허를 깨물어 나오는 침으로 허기와 갈증을 달래며 하나 남은 엄마 손을 붙잡고 걸었던 열 살 어린 소년이 있다. 늦은 밤까지 바닷가에 앉아 있는 엄마 옆에서 울음을 참던 소년에게 레모네이드 한 잔을 건네주었던 미군 병사도 있고, 드레스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던 엄마를 위해 드레스 재단 기술을 배우리라 결심한 소년도 있다. 엄마의 몸 치수를 재기 위해 바닷가로 갔지만 엄마가 바다로 사라진 것을 알고 바다로 뛰어든 소년이 있고, 그런 그를 힘껏 붙잡아 자기 집 다락방으로 데려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손을 잡고 지켜준 소녀가 있다. 이모 밑에서의 가혹한 노동을 피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드레스를 만들어 팔며 같이 살기 시작한 두 젊은 청춘도 있다. 남자의 늦은 청혼을 받은 뒤 갑자기 자신이 임신 했다는 것을 알고 불안과 걱정해 휩싸인 젊은 여성이 있고, 훈련 같은 것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월남전에 대리 파병된 젊은 남성도 있다. 극악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자신이 거는 총구 앞에서 겁에 질린 채 벌벌 떨다가 스스로 자기 목을 비틀어 죽음을 선택했던 베트남 젊은 청년과 그런 그를 보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은 한국 파병 군인도 있다. 예기치 못한 임신에다 역시 예상치 못한 남자의 강제 징용으로 결혼식이 무산되며, 남자가 만들어준 드레스 앞에서 불러오는 배를 안고 남편을 기다렸던 여인이 있다. 자연 출산으로 아기를 사산하자 그에 대한 죄책감에 비록 겁은 났지만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운 젊은 부부도 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죽으면서 남긴 어린 손자를 달래며 새벽마다 유모차를 끌어주던 부부가 있고, 고아원에서 도망쳐 길을 헤매다가 무턱대고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 소리 없이 문을 열어주었던 부부가 있다.

조부와 조모, 그들의 손자인 다인 혹은 모모와 그의 아내 연이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몸에 새긴 구멍 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자기 안의 구멍, 그로 인한 상처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같이 본 것을 누군가는 푸른빛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초록빛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겐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 차이를 인정하며 네 인물은 자기를 바탕으로 서로가 된다. 그렇게 그들은 오롯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하지만 절대 허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은 물론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 들을 보듬어 안았던 존재들이었다. “날실과 씨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제 모모와 연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흔든다. “창을 타고 열게 들어오는 새벽빛의 틈새로 네 얼굴이 보여. 안녕, 아가?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어?” 뱃속의 아이가 대답한다. “안녕, 아빠”

2. 지금 그의 또 다른 질문 : 나와 진정한 관계-맺기에 대해

무거운 몸, 갇힌 몸, 불안과 강박으로 끓는 몸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정신질환으로 아일랜드에서 구속되어 프랑스로 호송, 병원에 감금되었다가 사망한 프랑스 작가 앙토냉 아르토는 인간의 몸이란 그 안의 무수한 입자들이 쉬임 없이 충돌하며 들끓는 어떤 것으로 보았다. 아르토에게 신체는 정의 가능한 기능과 가시적인 형태, 즉 기관의 유기적 집합이 아니다. 훨씬 유동적이고 강도의 소용돌이나 단편으로 가득 찬 곳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몸을 절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생산적 동력이라고 보면서, 이를 연극과 연기가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성으로도 제안했다.

살갓 밑의 육체는 가열된 공장이다/ 그리고 걸으로는/ 병자는 빛난다/ 그는 번쩍인다/ 터진, 그 모든 땀구멍에서 번쩍인다.*



연극 〈그게 다예요〉(2023) © 돌파구

* 앙토냉 아르토, 『사회가 자살시킨 자, 반 고흐』, 이진이 옮김, 일다, 2023, 109-110쪽.

우리 안에는 수시로 무수한 감정들이 흐르고, 기억들이 겹치고 반복된다. 정체성을 운운하지만, 그것은 사실 모든 부분에서 개별화된 정체성 및 유기체를 넘쳐흐르는 부분적 연표행위의 구성 요소들의 교차점에 구현된 복수적인 타자이다. 그러니 그것을 완벽한 나, 정상적인 나로 지시된, 어떤 것으로 자꾸 수렴시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불안한 강박이 되고, 그에 따라 죄책감과 우울, 고립감을 깊어간다. 나는 하나의 타자이다. 초월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결함 없는 나, 남이 보기에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이는 완벽한 나에 대한 환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 바로 숙례와 소영이다.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아 있어, 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마치 거울처럼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깥의 시선으로 보면 모두 바깥의 시선으로 보면,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각자의 삶에서 엄청난 양적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다. 숙례는 평생에 걸쳐 엄청난 돈을 모은 재력가이고 소영은 미국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두 개나 따고 뉴욕에서 나름 잘 나가는 미국 정신의학과 전문의다. 그런데 이들 중 하나는 거실 소파에 움직이지 않은 채 누운 듯 무겁게 앉아 있고, 다른 하나는 거실 한쪽 금이 간 욕조 안에 역시 무겁게 누워있다. 그들은 자기에게 무겁고 암울하게 갇혀 있다. 둘 다 자신을 단단히 끌어안고 살았지만, 정작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숙례가 살면서 불안과 우울이 발생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던 욕망은 그녀의 거대한 저택 정원에 갇힌 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개의 형상이 되어 사납게 울부짖었다. 그녀가 죽으면서 개들도 사라졌고, 이제 한 마리만 남았다. 그 개는 유산상속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집을 찾아온 숙례의 딸 소영을 바라보고 있다. 그 개는 숙례 못지않게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쌓일 때마다 무섭게 돈과 명예에 집착했던 소영의 개가 된다. 개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야 하건만, 한때 숙례가 그랬듯 소영은 그러지 못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야 하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

어느 날, 그들에게 찾아 온 누군가들

그런 숙례와 소영에게 <그게 다예요>의 조부와 조모, 모모와 연이 같은 존재들이 찾아온다. 숙례에게는 미정이 그랬고, 이제 소영에게는 하민이 그렇다.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정은 숙례에게 했듯, 소영을 보살핀다. 그의 집을 정리해 주고, 옷을 세탁해 준다. 도그 워커로 고용된 하민의 몸은 가볍다. 소영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직접 음악을 연주해 준다. 자신과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자고. 아니면 어디론가 확 트인 곳을 찾아가 맘껏 몸을 펴보자고, 그리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보자고. 하지만 그런 하민이 불편하고 불쾌한 소영을 그럴수록 소영은 하민마저 통제하려 든다. 비행기 티켓도 자기가 끊고, 목적지도 자기가 정하겠단다. 하민은 그런 소영의 제안에 절대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소영의 자아 바깥에 머물며 소영의 굳은 몸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늘 쫓아가고 싶은 건 내 몸의 가벼움이야./아침에 폭 자고 일어났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가벼움./어디로든 가고 싶어지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가벼움./그것보다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는 건 없어.

소영과 다름없이 자신에게 갇혀 무겁게 살아왔지만 미정을 통해 그나마 자기를 찾았던 숙례가 저만치서 먼저 하민에게 반응한다. 개를 데리고 나간다. 아니 스스로 개가 되어 바깥으로 나간다. 이제 소영의 차례다. 평생 결함 없이 완벽한 나라는 모호한 환상에 강박증처럼 매달리며 딱딱하게 굳어졌던 자아의 표면을 뚫고 나가 자유로운 개가 되어 숲길을 만나고 흙냄새를 맡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신처럼 자유로운 내가 되어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이다.



연극 <그게 다예요>(2023) © 불파구



연극 <그게 다예요>(2023) © 불파구





강동훈

DAC Artist

사운드올프 아트 디렉터

작 <I'm 파프리카> <그게 다예요>

수상·선정

2024 국립극단 청소년극 창작벨트 <I'm 파프리카>

2023 제60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그게 다예요>

작가 노트

1. 개(Dog)

이 모든 건 내가 아는 한 여성에게 오래 지속된 불면 탓이다. 자려고만 누우면, 그 사람은 자꾸만 몸이 붕- 떠오른다고 했다. 이유도 없이 자꾸만 심장이 뛰다고. 그래서 나는 우선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 그 사람은 불안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의사가 아니어서 원인을 찾는 대신 그 사람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말해주었다.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이 긴 밤을 채우기 위해 하나씩 수집한 것들. 그 사람이 소유한 것들의 양이 꽤나 방대해서, 나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글로 적어야만 했다. 쓰면서도, 나는 이 글이 결국 거품에 대한 글이 되어 완성되는 순간 특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거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간 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지켜봤다. 그 사람은 한 번 입이 터지면 하룻밤이 모자랄 정도로 수다스러웠다. 멋대로 대화를 원했고, 그럴 땐 보답으로 요리를 해줘야 했다. 그러다보니 글이 하나 완성됐다. 긴 글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까. 적고 보니 돈도, 사랑도, 그것들이 만들어낸 거품도, 내가 지켜본 그 사람과는 꽤나 무관해보였다. 그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간결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싼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것들을 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2. 산책(Walk)

그 뒤로 그 사람과 나는 틈만 나면 산책했다. 낮에도 밤에도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줄어드는 말수처럼 점점 더 비어갔다. 그저 눈앞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물질로도 정신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길이 아주 잘 보였다. 그 앞에서 누가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장을 싫어했다. 우리는 걸었다. 그러다가 내가 바닥에서 멜라토닌 젤리를 발견했다. 우리는 그날 조금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그걸 꾸역꾸역 씹으면서 밤을 지새웠다. 그 사람은 가끔 스테이시 켄트나 도자 캣의 음악을 섞어서 틀었다. 정말 즐거운 밤이었다.

3. 사랑(Love)

여전히 희망이나 의미를 찾는 법도, 무의미에 지지 않는 법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건, 그 사람이 이제는 내게 전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잠에 들지 못할까. 나는 그렇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할까. 그건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게 전화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불안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거라고. 이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산뜻해진 기분으로 잠에 들 수 있다.

시놉시스

뉴욕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던 소영 씨는 오랜 불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다. 처음으로 한국의 재벌가에, 어머니의 집에 돌아온 소영 씨. 상속을 기다리면서 남겨진 개를 돌보기 위해 고용한 도그 워커 하민 씨와 선물 같은 사랑에 빠진다. 한편 미정의 새로운 고용인이 된 숙례 씨는 마치 본인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 같다. 숙례 씨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과 그 자본의 영향력으로 재벌가를 이루기 시작한다.

접근성 사항

한글자막·음성소개·휠체어석·안내보행·문자소통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음성소개







송정안

연극 <당연한 바깥><스물 여섯><비타민 P><모자_숨_스물다섯>
<마스크 속 입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아지트, 틴스>
<행복한 날들><수탉들의 싸움_COCK> 외

결을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곁에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욕망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다 안다는 듯 그 곁에 남기로 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머무는 마음.
그건 어찌면, 닿지 못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투정일지도 모른다.

기꺼이 '너'의 삶에 뛰어들기로 한 이들을 그리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욕망과 마주하게 된다.
허무, 불안, 권태, 죽음, 사랑—
늘 나와 함께 있던 것들이자, 나를 살아있게 만든 것들.
그것들을 달래려 손을 뻗으면, 그 끝에는 늘 '너'가 있었다.

이번 작업은 그런 '너'에 대해,
그리고 '나'의 '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

너는 늘 나를 궁금해했다.
나는 왜 늘 대답을 해야 할까, 피곤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네가 알고 싶어졌다.

그 마음이 들자, 오히려 나는 너로부터 가벼워졌다.
그제야 네가 보였다.
마음이 편해졌다.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내가 알던 허무와 불안, 권태와 죽음, 사랑 따위보다
조금 더 앞서기로 한다.
내 앞에는 언제나 나를 따라 걷던 '너'가 있었으므로.
네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비로소 나는, 내가 되었다.

이 작업을 통해,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기로 했다.

김지혜(드라마터그)

Andante(안단테; 나아가듯이), Allegro(알레그로; 명랑하게),
Adagio(아다지오; 침착하고 느리게),
Cantabile(칸타빌레; 노래하듯이), Dolce(돌체; 부드럽고 아름답게),
Leggiero(레지예로; 깃털처럼 가볍게)

클래식 악보의 좌측 상단에는 연주자에게 곡의 시작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작곡가의 빠르기말과 나타냄말이 표기되어 있다. 이 말들을 타고 연주자는 메트로놈 속 수학 공식 같은 주어진 박자라는 틀 안에서 자기만의 색을 입혀 악보에 적힌 선율들을 통과해 나간다. 연주자에게 있어 빠르기 말과 나타냄말은 곡 속 세계관의 감각을 지닌 중요한 단서이자 이 세계를 지은 창조자의 작의를 연주라는 수행을 통해 잠시나마 통감하게 하는 중요한 창작의 열쇠이다.

1부 “가볍고 산뜻하게”

2부 “거세게, 그 다음 느리고 여러게”

〈도그 워커의 사랑〉의 1부, 2부 제목도 이와 같은 음악 언어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제4의 벽을 뚫고 관객에게 투영되는 청자도 화자도 정해지지 않은 듯한 전지적 시점의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타이트한 알고리즘을 따라 흐르는 전자음, 한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인물들 등 다양한 겹의 미스터리로 지어진 〈도그 워커의 사랑〉이라는 시공간을 통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감각적 힌트가 각 챕터의 제목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힌트는 감각의 조각을 담고 있는 동시에 어떠한 태도를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 태도라고 한다면 누가 무엇을 대할 때의 태도일지가 관점에 따라 유기적으로 바뀌며 극의 구조적 미스테리에 한 겹을 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도그 워커의 사랑〉은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선 소영과 소영 주변 인물인 에디, 미정, 하민, 그리고 검은 개 사이의 역학과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긴 세월 속 숙례와 미정 사이에서 감정의 향연을 교차하며 조망한다. 보통 무대 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다양한 감정 상태(state of mind)가 소영과 숙례, 숙례 이야기 속의 미정의 관점 안에서 판단이 보류된 채 감각과 태도로 탐구된다.

“이 감각은 뭘까. 평생을 부풀려온 몸. 밀도 높게 채워진 이 거대한 몸. 오늘도 숙례 씨의 몸은 자꾸만 붓, 떠오르려고만 한다.”

작품은 비움에 대한 충동, 채움에 대한 허기, 권태의 무섭게 나른한 편안함, 허무가 가진 힘과 운동성에 사로잡힐 것 같은 두려움, 사랑과 구원을 향한 희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받아들임의 상태(acceptance)를 다양한 몸의 감각으로 구체화한다. 나보다 큰, 나를 사로잡고 이끄는 정동(affect)의 존재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너는 매일 밤 불안을, 때로는 권태를, 보통은 허무를, 아직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그렇지만, 숙례씨는,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게 두려움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 했다…그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어있는, 공백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인데. 문제는 그 공백이 자꾸만 제멋대로 형태를 바꿔버린다는 거다. 채워지기도 전에 무언가를 따라 늘 변화하고, 새로 형성되고. 그 바람에 그건 도저히 채워질 틈이 없지만.”

Mindfulness(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명상 상태는 비어 있는 유리병 같은 존재의 현존 감각 상태를 지향한다. 이 이상적인 명상 상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을 통과하는 다양한 감정과 변화를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그 병 안에 무엇이 들어오든 “yes, and”(긍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 모든 감각의 채움과 비움을 음악처럼 타고 흐르는 〈도그 워커의 사랑〉의 세계관을 모두 통과한 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아마도 음악을 다 듣고, 눈을 감았을 때, 피어나는 잔상이지 않을까 싶다. 마치 마음에 와닿는 미술 작품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막 발걸음을 돌렸을 때 몸에 남는 잔상처럼.

“불이 켜지면 아무도 없다. 눈 위에는 소영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

공허함과 자기 참조적 처리

이에지(심리 전문가)

김윤희(편집)

사람의 뇌는 항상 자신(Self)을 기준으로 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며 그에 의미를 부여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참조적 처리 : self-referential processing'이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볼 때 그것을 '나'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용감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고 '용감하다/아니다' 혹은 '어떤 부분이 용감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나의 내적 기준 및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의미가 부여된다.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의 자아 개념에 부합하는가?

나의 삶의 서사(Story)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시 말해 개인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자극의 '의미' 즉, 세상의 모든 의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생성됨을 의미하며, 세상에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생성되고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는 모든 '의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며 개별적으로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참조적 의미'는 단순한 인지적 개념을 넘어 정서적 활력과 개인의 존재감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의미'를 '만드는 존재'이기에 특정 자극이 '나에게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생동감을 느끼고 자신이 실존한다고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 참조적 의미가 결핍된 상태에서 우리는 '공허함'이란 감정을 마주할 수 있다. 개인의 인식 안에서 나와 세상은 여전히 실존하고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세상과 나의 연결이 유리되어 있는 듯한 감각이 '공허함'의 실체이다. 즉 세상이 주는 자극들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지적 수준에서는 존재를 인식하지만, 정서적 수준에서는 연결이 끊겨 정서적 활력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소유·애정·성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채우려는 행동 혹은 '텅 빈 느낌'을 그러한 방식으로 잠재할 수 있다는 신념은 단순한 탐욕이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내적 의미·정서·자아 통합의 결핍에 대한 보상적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허함이 오래 지속되고 세상에서 '의미'를 오래 찾지 못하게 되면

인지적 일반화가 일어나 '허무감'으로 발전 정착할 수 있다. '허무감'은 공허함에 비교해 보다 인지적 특징을 띄며, 사물·가치·목적 등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생각 혹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본래 세상은 개인에게 '의미'를 주지 않고 개인 각각이 세상과 접하며 받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이는 일견 타당한 현실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근원적으로 '세상 모든 것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존재론적 허무'를 마주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며 외부의 자극(소유·애정·성적 행위)을 통해 보상적 반응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의해 '허무감'을 느끼며 세상에 대한 '의미'를 묻는 과정은 일견 자연스러운 개인사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묻고 깊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기에, 어찌 보면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끝에 '존재론적 허무'를 두려움이 아닌 '현실'로 인식하고, 그것을 보상적 반응으로 회피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통과할 때 개인의 내면은 전환점을 맞고 새로운 기반 위에 서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 나와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면에서 창조할 수 있게 되면 허무를 넘어 자기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허무'를 인정하되 삶의 주체가 되어 진정한 '자기 참조적 의미'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도그 워커의 사랑>은 이와 같은 개인의 '자기 참조적 의미'의 결여와 회복에 대해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회피와 보상 반응 그리고 통합을 향한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 소영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공허감'과 '허무함' 소유·애정·성적 행위로 대표되는 보상 반응의 표현은 소영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심리 개념으로 '애착 이론'이 있다. 성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이 어린 시절 주 양육자(들)와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 유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하게 '애착'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소비하지만, 사실은 보다 시스템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정서적·인지적 체계의 근본적 필터'로서 작용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John Bowlby)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관계에서 오고 가는 감정 교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행동 시스템이라고 본다. 초기 양육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나' 그리고 '타인과 외부 세계'에 대한 심리적 표상은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등을 알려주는 내적 지표가 되고, 이는 곧 자기 참조적 처리의 나침반으로 쓰인다.

〈도그 워커의 사랑〉에서 주인공 소영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대부분이 안정적이지 않은 애착 유형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타인의 감정과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도 한다. 또한 불협화음 속에 더 큰 혼란과 '존재론적 허무'를 느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힘쓴다. 이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미성숙함을 반영하기도 한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내가 타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애착 유형은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할 수 있다.

〈도그 워커의 사랑〉의 인물들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울려 서로를 채우고, 빼격이는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마침내 홀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워 나가면, 개개인은 '자기 참조적 처리의 나침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존재론적 허무'와 상생하며 '나'의 삶을 통합해 가는 생의 여정을 지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영규
에디 역

연극 〈(빌린)결혼〉〈삼매경〉〈나는 광주에 없었다〉〈구미식〉
〈대학살의 신〉〈지상의 여자들〉〈진천사는 추천석〉〈고목〉
〈회란기〉〈닭꾸우스〉 외
수상 2025 제6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진천 사는 추천석〉
2010 제31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들소의 날〉
2006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 연기상 〈백중사 이야기〉



윤현길

소영 역

연극 <광장시장><목련풍선><화성골 소녀>
 <어느 물리학자의 낮잠><연안지대>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이런 밤, 들 가운데서>
 <댄스 네이션><잔인하게, 부드럽게><금조 이야기> 외
 드라마 <마이 유스><기생수: 더 그레이><운수 오진 날>
 <천원짜리 변호사><그린마더스클럽>
 <유미의 세포들 시즌1,2><모범형사 시즌2>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지옥> 외
 영화 <야당><데드맨><정이><내가 죽던 날> 외



박옥출

미정 역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엔들링스><멸망의 로맨스>
 <심청전을 짓다><금조 이야기><시간의 난극>
 <비온새 라이브><머리를 내려놓아라>
 <숙영낭자전을 읽다><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외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아라문의 검><힙하게>
 <아스달연대기><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외
 영화 <싱크홀><아이> 외
 수상 2022 제43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심청전을 짓다>



윤경
숙례 역

연극 <구미식><고목><아이들><지상의 여자들><키리에>
<그게 다예요><날아가 버린 새>
<XXI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노란봉투>
<복도에서, 美성년으로 간다> 외
영화 <이공삼칠><나의 탐스러운 사생활> 외
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2><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외



최정우
하민 역

연극 <아마테우스><나의 아저씨><카포네 트릴로지>
<화이트래빗 레드래빗><붉은 낙엽><보이즈 인 더 밴드>
<간과 강><뽕야><엠. 버터플라이><히스토리 보이즈> 외
드라마 <에스콰이어><재벌X형사><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
<징크스의 연인><멀리서 보면 푸른 봄>
<바람과 구름과 비> 외



연습 노트

김성령(조연출)

가볍고 산뜻하게 리딩

‘가볍고 산뜻하게’는 <도그 워커의 사랑>의 1부 제목이다. <도그 워커의 사랑>은 가볍고 산뜻한 숙례의 불규칙적인 독백 뒤로 소영이 만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연습팀은 소영이 만나는 격동의 드라마가 숙례가 발화하는 가볍고 산뜻함과 한 무대 위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시도하며 리딩 시간을 가졌다.

미국에서 돌아온 소영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 <도그 워커의 사랑> 세계관에 들어가기 위해 대본 속 용어와 관련 용어 및 자료를 검색해 보기도 했다.

→ 니힐리즘(Nihilism)

: 허무주의라고도 한다. 종래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생활상의 가치, 즉 이상이나 도덕 규범, 문화, 생활 양식 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 니힐리즘이란 “최고의 모든 가치가 그 가치를 상실한 것, 목적이 없고 ‘무엇을 위해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니체는 말한다.

—출처: 『철학사전』에서 발췌

→ 가상현실의 시뮬라크르(Simulacre)

: 앤디 워홀(Andy Warhol)의 그림을 떠올려 보자. 원본이 있다기보다는 오직 모사품들의 행렬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원본과 모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가짜, 즉 원본과 복제가 구별되지 않는 영역 속에서 바로 시뮬라크르가 서식한다.

: 프랑스어로 ‘시뮬’, ‘흉내’, ‘모의(模倣)’ 등의 뜻을 지니는 시뮬라크르(Simulacre)는

‘가상’, ‘거짓 그림’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시뮬라크룸(Simulacrum)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라틴어 단어는 영어에서도 그대로 흡수되어, 모조품이나 가짜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요컨대, 시뮬라크르는 ‘원본의 성격을 부여받지 못한 복제물’을 뜻하는 개념이다.

—출처: 『모범도 원본도 없는 복제물의 삶(생활 속의 철학)』에서 발췌

: 현대 세계에서는 시뮬라크르 중독 현상의 부작용이 찾아올 수도 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실재 세계에 살고 있었다. 실재 세계(Physical World), 가상 세계(Virtual World), 인공 세계(Artificial World), 모의 세계(Simulation World), 디지털 트윈 세계(Digital Twin World) 등 다중 세계 속에서 어떤 세계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캐드엔그래픽스 2020년 12월호 조형식』에서 발췌

→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 제임스 터렐은 시각예술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이자 항상 조연이었던 ‘빛’이라는 매체를 작업의 주연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타 작가들과는 다른 예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하늘과 빛을 관조하게 하며,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빛을 마주하는 ‘빛으로의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출처: 『MUSEUM SAN, 한술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발췌

→ 프리메드(Pre-med)

: 프리메드란 ‘Pre-medical’의 줄임말로, 보통 ‘Pre-med’라고 표기한다. 의대 진학을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대 진학 준비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출처: 『남경윤의 의대칼럼, 가주교육신문』에서 발췌

→ 마술적 사실주의(Magical Realism)

: 마술적 사실주의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다룬다.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안에 초현실적 요소를 병치하여, 현실의 낯설고 복합성을 드러낸다. 허구와 진실의 경계는 벌어지고, 독자들은 더 이상 그 둘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소설 속 인물들이 이처럼 비현실적인 일들의 발생을 마치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출처: 『내적 사실을 환상으로 녹여낸다. 마술적 사실주의 연세일보』

‘거세계, 그 다음 느리고 여러게’

장면 스케치

‘거세계, 그 다음 느리고 여러게’는 <도그 워커의 사랑>의 2부 제목이다. <도그 워커의 사랑> 연습팀은 리딩 이후로 다섯 명의 인물이 사실과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움직였다.

거세계 튀어나오는 사실적인 감정과 몸짓은 그대로 나타내고, 느리고 여러게 흘러갈 수 있는 구간들을 찾고 있다.

첫 장면 스케치 날, 모든 소품이 프리셋 되어 있는 상태를 피하고 1부 오프닝 장면

숙례가 직접 이 집을 채우고, 이어서 등장하는 소영·에디·하민·미정이 그 소품들을 사용해 보는 연출로 움직였다. 예를 들어 숙례가 벌어들이는 자본에 비유하며 던진 멜라토닌 젤리를 소영이 나중에 들어와 집어 먹고, 숙례가 던진 신용카드가 소영의 신용카드가 되어 하민에게로 간다.

숙례와 소영을 어떻게 병치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 숙례와 소영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이 한 공간 안에 따로 존재하면서도, 어느 순간엔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장면을 만들었다.

장면이 가볍고 산뜻하게, 거세계, 그 다음 느리고 여러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이 이 순간을 지켜보는 관객에게 눈과 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무대디자인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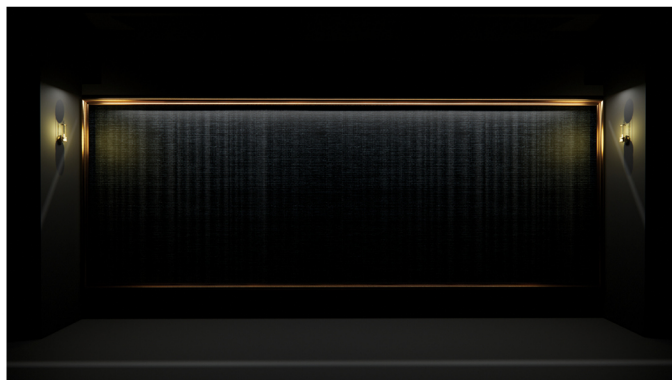
조경훈

무대디자이너

〈도그 워커의 사랑〉의 무대는

소영의 허무를 채워 줄 그림이자, 소영이 찾은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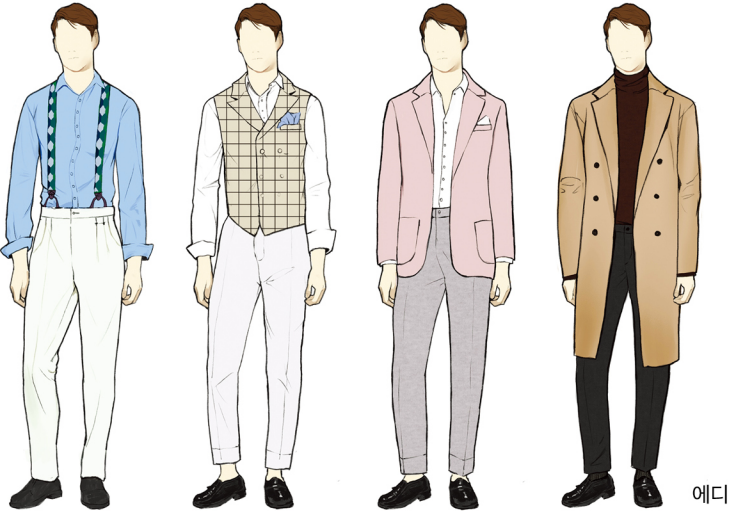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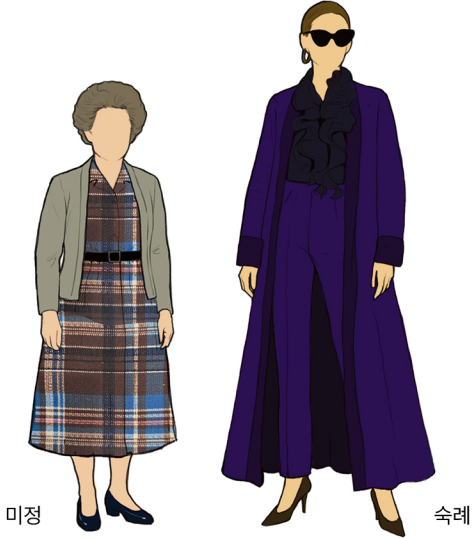
의상디자인 노트

홍문기
의상디자이너

〈도그 워커의 사랑〉에서 의상 컨셉은 ‘외로운 인간들의 공허한 사랑’이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시작해 버린 사랑은, 물에 잉크가 퍼지듯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것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하민의 존재가 진하게 퍼져 나가면서 물들어 버린 이 공간에서,
소영이 하민에게 어떻게 물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무(無)의
색으로 존재했던 소영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민의 컬러로 물들어 갔지만,
하민의 마음이 떠난 후로 그녀는 다시 무의 색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은 처음 소영이 가지고 있던 무의 색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처음 소영의 의상이 담고 있던 컬러의 의미가 공허함이었다면, 마지막
소영의 의상이 담고 있는 컬러는 비워냄의 컬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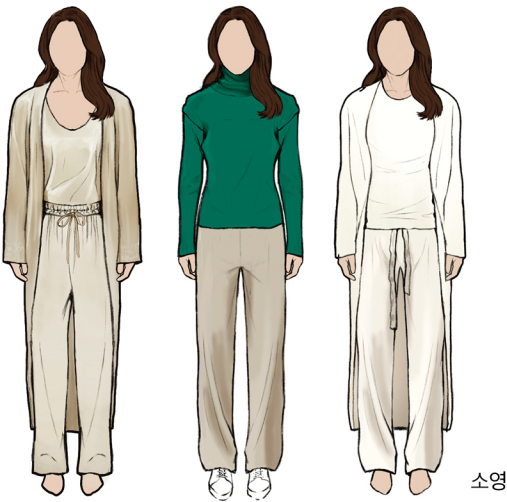


에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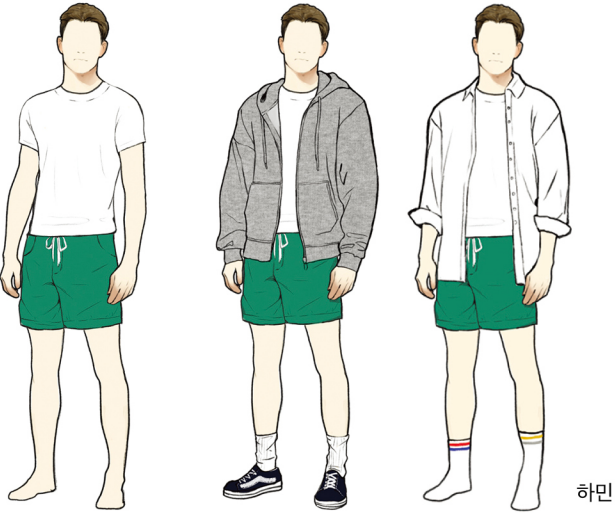


미정

숙례



소영



하민

그리고 이 공간에 머무르는 또 다른 인물들인 숙례와 미정은 또 다른
공허함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정에게 숙례는 인생의 큰 존재였다. 그런 존재의 부재는 큰 공허함을
만들어 냈고, 그녀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숙례를 만들어 내게 된다.
미정에게 죽음은 그 공허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제 공허함을 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 내려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바란다.

음악 노트 강동훈 작가의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흰 눈'이었다. 빛은 색을 더할수록 밝아지고, 모든 색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
 조은희 이 대본은 그렇게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면체적인 성질을 지녔다.
 음악·음향디자이너 그 안에는 유독 음악과 소리에 관한 묘사가 풍부했다.

작가는 자신을 단순히 작가나 공연 창작자에 국한하지 않고, '사운드올프'의
 아트디렉터로도 소개한다. 그의 대본에는 연극적 문법을 넘어, 미니멀한
 미술 작업이나 영상 매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스며 있었다. 나 역시 이번
 작업에서 음악을 '극음악'의 틀 안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그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연극 작업을 할 때, 나는 대본을 읽으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소리와
 음악으로 구현하거나, 자유도가 주어질 경우 텍스트 속 이미지까지
 청각적으로 확장해 내는 방식을 선호한다. 강동훈 작가, 송정안 연출과의
 첫 회의에서 느낀 것은, 이번 작품이 보이는 텍스트를 넘어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이었다. 내가 대본을 읽으며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열린 세계였다. 예컨대 '이명'이라는 불편한
 소리조차 소음이 아닌 음악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베를린의 클럽에서
 들릴 법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차갑지 않게. 결국은 '사랑'을 품은 소리여야 한다는 점을 작업 내내 잊지
 않으려 했다.

이명은 본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의 이명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신호이자, 소영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는
 통로가 된다. 나는 이 소리를 앰비언트 텍스처와 목소리 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불편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사운드시케이프를 만들고자
 했다. 고주파의 날카로움과 따뜻한 신스 패드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 그 복합적인 결이 바로 인물의 다층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음악적 언어가 되었으면 했다.

사운드로 인물을 묘사하는 일은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유난히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람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연극 작업을 할 때마다 나는 배우들이 수많은 대사를 외우고, 결국
 그 인물이 되어 버리는 순간을 목격한다. 그 장면은 언제나 감동으로
 다가온다. 또한 음악이 배우의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무게만큼의 책임감을 느낀다.

허무가 범람하는 세계 속에서도 끝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공연.
 강동훈 작가가 그려낸 인물과 사건을 송정안 연출을 비롯한 모든 창작진이
 함께 애써 만들어냈다. 이 작업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좋은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DAC Artist 강동훈 도그 워커의 사랑	2025.10.29~11.16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음악감독·음향디자이너 조은희	SNS콘텐츠제작·영상(연습, 인터뷰)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작 강동훈	음향시스템디자이너 최윤녕	영상(공연 실험)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연출 송정안	음향오퍼레이터 서정민	영상(인터뷰) AWF 1/2(대표 윤성준)
드라마터그 김지혜	음향크루 염신열 윤기선	인쇄 으뜸프로세스
조연출 김성령	의상디자이너 홍문기	회곡집 출판 이음
출연 조영규 윤현길 박옥출 윤경 최정우	의상제작 이엘(대표 홍문기)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의상 어시스턴트 송지민	
프로덕션 무대조감독 신범수	분장·소품디자이너·제작 장경숙	
무대디자이너 조경훈	분장작업 정서연	
무대제작 wa stage(와스테이지) (대표 조환준 이종민 윤진상 정병문 백종우 임학균 김대영)	접근성 제작·운영 플랫폼안녕	
작화 작화공간 (대표 이남련 박지원 이진경 이재형)	한글자막해설 디자인 이청	
조명디자이너 성미림	한글자막해설 오퍼레이터 조세라	
조명팀장 김휘수	그래픽디자이너 박연주	
조명오퍼레이터 조애진	사진(포스터·프로필·설정) 정희승 스튜디오(대표 정희승)	
조명크루 김세희 김은빈 양가영 유보민 유예찬 윤혜린 이재현 정찬영 주재현 한성민 허정현 홍주희	사진(연습·공연) Studio AL(대표 김윤희)	
조명장비 임차 세븐 컨트롤(대표 김재원)	사진(관객과의 대화) 스튜디오1024(대표 이재호)	



(왼쪽부터 시계방향) 조영규 최정우 윤경 김지혜 김성령 송정안 강동훈 윤현길 박옥출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이윤서 이예인	하우스 안내원 권도이 권현수 기나연 김경미 김상윤 김수빈 김수아 김하나 송해원 신아영 양서은 이승규 이승훈 이예진 이채민 이하온 이현지 임소은 조수빈 차승준 하수영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박지희 김지영	기술총괄 황동철	
티켓 이연서	음향 신승욱 류호성	
사무 유은우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무대 강현후 박소연	

두산아트센터 2025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예술	시각 예술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고스트 베이커리 2024.12.19-2025.2.23 뮤지컬 라이카 3.14-5.18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6.3-9.14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5.10.30-2026.1.25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5 1.22-3.8 노혜리 개인전 4.2-5.1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Ringing Saga 6.4-7.12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녹색 섬광 8.6-9.13 두산갤러리 기획전 10.22-12.13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5 다원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 1.9-1.11 연극 8월, 카메군과 모토야스 강을 건너 기록 1.16-1.18 연극 감정 연습 1.23-1.25 뮤지컬 달리, 갈라 기획전 2.20-2.22 연극 그리고 남겨진 것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길고 긴 사이 2.27-3.1 연극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3.6-3.8 연극 물과 뼈의 시간 3.13-3.15 연극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 3.20-3.22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8-2.17, 7.3-8.9 두산아트스쿨: 미술 4.3-4.24, 11.4-11.25 두산인문극장: 강연 4.7-6.30 두산아트스쿨: 리서치 4.14-8.25 두산아트스쿨: 공연 8.11-8.14 두산아트센터 투어 10.16-10.17 Studio DAC 프로그램 4.-12.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4.22-5.10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5.20-6.7 뮤지컬 광장시장 6.17-7.5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6-1.23 두산아트랩 공연 5.7-6.4 공동기획 6.9-7.9 시각 예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6-1.19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1-5.4 두산아트랩 전시 6.2-6.14
공동기획 극단 작은방 연극 견고딕걸 3.29-4.13 글과무대 연극 번아웃에 관한 농담 7.19-8.3	
DAC Artist 박주영 연극 마른 여자들 9.10-9.28 강동훈 연극 도그 워커의 사랑 10.29-11.16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이오진 연극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 11.26-12.14	

